

# 대학생이 지각하는 학교생활 및 지원체계 요인과 진로결정여부 간의 관계 분석

김 누리<sup>1)</sup> · 김 효 원<sup>2)</sup>

## 요 약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 5차~8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학 1~4학년 간의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특히 대학생이 지각하는 학교생활 및 지원체계 요인을 중심으로 장래 진로결정과의 인과관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대학 1, 2학년은 장래에 대한 진로 미결정율이, 대학 3,4학년은 진로 결정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생활 및 지원체계 요인으로 교우관계, 학교자부심,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학사제도 운영, 지도교수와의 면담횟수를 설정하고, 이를 독립변수로 하는 인과모형에 대한 검증결과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든 학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해 학년별로 살펴본 결과 학교 자부심은 모든 학년에서 진로결정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와 더불어 1, 3학년은 지도교수와의 면담횟수가 진로결정 증가에 영향을, 4학년은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이 진로결정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학에서 진로교육을 계획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제시하고 나아가 각 요소들이 진로교육에서 갖는 의미와 기능을 제시함으로써 진로교육의 질적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주제어: 진로결정, 학교생활 및 지원 체계, 로지스틱 회귀분석

## I. 서론

대학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부모와 학교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진로를 계획하게 되고 직업과 직장을 구체적으로 결정해서 실제적인 사회의 진입을 준비해야 한다. 이 때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 계속 머무를 것인가?” 혹은 “내가 좋아하는 직업은 무엇인가? 내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직종은 무엇인가?”, “대학원에 진학할 것인가? 사회에 취업을 할 것인가?”, “직업을 구한다면 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등의 수많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게 된다. 이는 진로결정의 순간에 직면하는 것으로 대학생들은 대학에 와서야 비로서 자신을 이해 과정과 진로탐색과정을 거치게 된다(임은미, 2011). 대학생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기까지는 결정과 미결정 사이를 여러 번 넘나들면서 점차적으로 진로결정이 안정화 되는 과정

1) 서울시립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2) 삼육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을 밝게 된다(임은미, 2011). 이 과정을 통해 그들은 스스로 진로를 결정했다고 판단하기 이전의 진로미결정 상태에서 진로를 결정했다고 느끼는 결정의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김봉환, 김계현, 1995, Gati et al., 1996). 우리는 주변에서 자기 이해나 직업세계의 이해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및 전공 선택을 한 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와 전공을 선택한 것은 외적으로 볼 때는 진로 결정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미결정을 장기화 시키는 행동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미결정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직장을 선택할 때도 자신의 이해 과정을 충분히 겪지 못한 채 직장을 결정하게 되므로 진로과정에 있어 또 혼란을 겪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 결과는 지속적으로 직장생활의 결과에 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적절한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판단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Zunker, 2006).

그동안의 진로미결정에 대한 연구들은 개인 변인인 진로미결정과 정체감, 불안, 애착, 심리적 독립,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김봉환, 김계현, 1995; 최영미, 2009). 그러나 앞서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대학생이 스스로 대학생활 동안 자신의 정체감을 찾고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하는 역할자 중 하나는 바로 대학이다. 몇몇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진로 미결정은 현재 생활의 만족도나 전공에 대한 만족과 부적인 관련성이 있으며, 문화적 요인, 부모와 또래 등의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민선, 이윤정, 문희강, 이예영, 2010; Tak, 2006; Guay et al, 2006). 또한 강원준, 김종인, 김정원(2008)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그들의 취업성공에 효과가 있었음을 제시하였고, 황매향, 손만익, 강혜영(2007)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탐색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진로결정수준, 진로정체감, 진로준비행동의 점수가 높았음을 확인하였다. 임은미(2011)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의 진로결정과정의 주요 개입요인으로 ‘소속 전공과 학과에 대한 자부심, 지속적인 환경지지’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여부에는 대학생 개인의 특성이 중요한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 역시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진로결정에 관련된 연구들은 대학생 개인 변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환경과 개인 특성의 변인이 진로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Tinsley,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의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대학생들의 1~4학년 동안 진로결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환경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는 대학에서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지원이 어떤 효과를 거두었는지 분석 및 평가 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의 계획과 방안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진로결정

진로결정 정도는 대학생들이 향후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의 정도로 진로미결정과 확고한 진로결정을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어느 한 지점을 의미한다(전선영, 2009). Walsh(1987)는 진로결정이란 개인의 발달과정 중 하나이고 개인마다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사회 학습이론가들에 의해 제시된 유전적 재능과 자질, 환경조건과 다른 사건들, 학습경험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 진로결정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 Crites(1981)는 진로미결정을 개인이 직업선택과 진로를 결정해야 할 단계에서 확실한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라고 보고 진로결정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성, 사회, 문화적 배경 등의 구성요소보다는 정보의 부족, 진로결정에 대한 학습부족, 진로선택에 대한 경험 부족 등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사회, 환경적 지원을 강조하였다. 또한 김봉환(1997)은 진로결정이란 일반적으로 현재 상태 이후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방향을 분명히 설정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에서의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 또는 졸업 후 자기가 종사할 구체적인 직업분야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진로결정이란, 학생들이 진학 및 직업선택에 대한 확신의 정도로 진로미결정과 진로결정의 연속선상에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가를 의미한다.

### 2. 대학환경과 진로결정과의 관계

대학생들의 취업과 관련하여 대학환경의 중요성을 살펴본 연구들은 질적환경이 좋은 대학의 학생일수록 그렇지 못한 학생들보다 직업선택의 만족도, 직장생활의 적응, 임금수준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lwin, 1974; Smart, 1986; 1988).

소위 좋은 대학에서 좋은 직업적 지위로 연결된다는 사실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전선영, 2009. 재인용). 첫째, 좋은 대학에서 높은 취업률을 보인다고 할 때 그것은 대학 체계가 효율적이기 보다는 이미 상대적으로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되는 학생들이 모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이는 대학조직의 위광효과로 이러한 이유에서 많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절대적 노력을 하게 된다. 둘째, 대학 조직의 외생적 효과에 의한 것이다. 대학의 교수들이 연구 및 학생들의 진로지도에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학교의 지원 체계 역시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졸업 후 학생들은 비슷한 위치의 대학 졸업생들에 비해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배태성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등위성의 효과이다. 대학 간 교육체계 내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이미 좋은 대학에는 성취동기가 높은 학생들끼리 동질 집단 내에서 경쟁하므로 경쟁의 강도가 심화되어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김선영, 2000).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효과성 중 두 번째인 '외생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과연 대학의 지



원체계가 얼마나 학생들에게 효과를 주고 있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몇몇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학특성이 대학생들의 진로의식 성숙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대학의 환경이 진로의식 발달 및 취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ascarell & Terenzimi, 1991; 서미원, 1996).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횡단적인 연구결과로써 대학생들의 학교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생들의 학교생활 동안에 학교 요인의 진로결정 영향력을 살펴 볼 것이다.

### 3. 대학에서의 진로지도

대학 내 진로지도는 대학생들의 진로발달단계에 맞추어 진로결정을 도와주어야 한다(Nile & Harris-Bowlsbey, 2008). 이러한 측면에서 Brown(2007)은 다음 <표 1>과 같이 대학기관이 대학생들의 진로발달을 돕기 위한 필수적인 진로 서비스에 대해 제시하였다.

**<표 1> 대학기관 진로지도 필수 서비스(Brown, 2007)**

	항목
1	학생들이 자신의 학문 영역과 진로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자문 제공
2	진로발달과 진로탐색의 다양한 영역을 다룰 수 있는 진로교과목 개설
3	진로발달과 취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강 개최
4	학생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진로정보를 탐색하고 자신의 진로를 계획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활동 지원
5	현장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턴십 기회 제공
6	다양하고 정확한 진로 정보 제공
7	교직원들이 대학생들의 진로발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직원 대상으로 자문활동 실시
8	보다 복잡한 진로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진로상담 실시
9	학생들이 자신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로검사 실시
10	다양한 활동을 총괄하고 진행할 수 있는 진로상담센터 설립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지도 서비스를 살펴보면 학생생활연구소를 통해 진로상담 및 심리검사 또는 진로발달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취업정보센터나 종합인력개발센터에서 취업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캠프, 특강, 워크숍, 모의면접 및 취업 설명회, 취업 박람회, 취업동아리, 온라인 취업전산망 등을 운영하고 있다(강원중, 김종인, 김정원, 2008). 이렇게 다양한 진로서비스들 중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취업정보센터를 통한 정보제공이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진로서비스들이 대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대학 내 진로지도 서비스는 대학생들의 진로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이동혁, 2010). 이지연(2001)은 161개 4년제 대학의 재학생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에서 60.9%가 대학 내 진로지도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진로지도 서비스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3,4학년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1,2학년들은 서비스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

학생들이 진로준비를 위해 가장 많이 하는 활동으로는 ‘진로 관련된 친구, 선배와의 대화’, ‘진로관련 지식 독학’, ‘진로관련 인터넷 검색’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 대부분이 진로준비를 스스로 비전문적이고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계획 및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이 진로결정을 위해 도움을 요구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 내 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또한 대학에서의 지원 체계가 대학생들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데이터(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data cohort 1)의 5차년에서 8차년까지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연구자는 1~4학년 동안의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환경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KEEP 1차 조사(2004년)의 중학교 3학년이 대학생이 되는 시점인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학년에 따른 성별, 학교유형(전문대, 4년제)별 빈도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1차년(2008년)의 경우 표집집단이 2,100명으로 남자 1,098(52%)명 여자 1,102(42%)명이었다. 2차년(2009년)은 이보다 작은 1,639명이 표집집단으로 구성되었고 남자 565(34.5%)명 여자 1074(65.5%)로 여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3차년(2010년)에는 1,347명의 표집집단이 구성되었고 남자 504(37.4%)명, 여자 843(62.6%)명이었으며 4차년(2011년)에는 1,462명이 표집되었고 남자는 775명(53%) 여자는 687명(47%)이었다.

<표 2> 연구대상의 특성

		구분	사례 수(명)	빈도(%)
1차년 (N=2,100)	성	남	1098	52.0
		녀	1012	48.0
	학교유형	전문대	807	38.3
		일반대	1298	61.5
		기타	5	.2
2차년 (N=1,639)	성	남	565	34.5
		녀	1074	65.5
	학교유형	전문대	521	31.8
		일반대	1116	68.1
		기타	2	.1

<표 계속>



		구분	사례 수(명)	빈도(%)
3차년 (N=1,347)	성	남	504	37.4
		녀	843	62.6
	학교유형	전문대	363	26.9
		일반대	982	72.9
		기타	2	.1
4차년 (N=1,462)	성	남	775	53.0
		녀	687	47.0
	학교유형	전문대	353	24.1
		일반대	1105	75.6
		기타	4	.3

## 2. 연구 변인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변인은 <표 3>과 같다. 첫째, 종속변수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으로 이는 장래 희망직업을 결정하였는지의 여부에 응답하도록 하는 진위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대학에서 제공하는 지원체제와 관련한 독립변수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학교생활에 대한 평가 문항과 교수와의 면담 횟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학생들이 지각하는 학교생활 평가 문항은 문항 내용에 따라 교우관계, 학교 자부심, 학사제도 운영,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분하였고 문항의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교수님과의 면담횟수는 지난 1년 동안의 지도교수와의 면담횟수를 직접 표기하도록 제시되었다.

**<표 3> 연구변인의 구성 및 설명**

변인		문항 내용		변수처리
종속 변수	진로 결정*	미래의 직업을 결정하였습니까?		1=아니오 2=예
독립 변수	학교 생활 및 지원 체제	교우 관계	우리학과는 학생들 간의 관계가 좋다	5점 척도 Likert
		학교 자부심	나는 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다	
			나는 우리학과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우리학교에서는 학생의 고민에 대한 상담이 잘 이루어진다.	
			우리 학교에서는 진로에 대한 정보 제공과 상담이 잘 이루어진다.	
		학사제도 운영	학교에서 기초학습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리 학교는 교과목 선택에 대해 교수님이 적절히 지도한다. 우리 학교는 교육과정의 다양하게 구성되어 선택의 폭이 넓다			
면담 횟수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몇 회 하였습니까?		횟수	

\*역코딩 문항

###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변수는 ‘예’, ‘아니오’의 이분문항으로 선형회귀분석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각각의 설명변인의 유의한 효과는 승산비를 통해 검증된다. 즉, 설명변인 ( $\chi_i$ )이 주어졌을 때, 종속변인이 1일 확률은 승산(odds)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승산은 진로미결정 확률( $1-\pi(\chi_i)$ )에 대한 진로결정 확률( $\pi(\chi_i)$ )의 비율을 의미하며, 로짓 변형을 통한 선형식은 다음과 같다(최윤미·길혜지, 2012 양명희, 2005 재인용).

$$\log \frac{\pi(\chi_i)}{1-\pi(\chi_i)} = \beta_0 + \beta_1\chi_1 + \beta_2\chi_2 + \dots + \beta_n\chi_n$$

이를 진로결정 확률( $\pi(\chi_i)$ )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함수로 표현된다.

$$\pi(\chi_i) = \frac{\exp(\beta_0 + \beta_1\chi_1 + \beta_2\chi_2 + \dots + \beta_n\chi_n)}{1 + \exp(\beta_0 + \beta_1\chi_1 + \beta_2\chi_2 + \dots + \beta_n\chi_n)}$$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결정 여부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로지스틱 모형을 탐색함으로써 대학생의 학년별 진로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대학생활 요인을 확인하고, 개별 변인의 상대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통계분석 프로그램 SPSS 18.0 을 사용하였다.

## IV. 분석결과

### 1. 기술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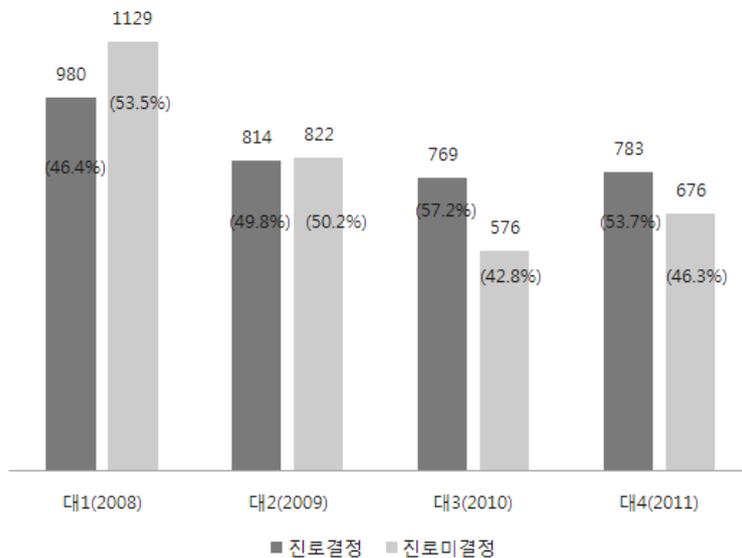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변인에 대한 기술통계치는 <표 4>와 같다.

**<표 4> 연구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요인	대1 (N=2,100)		대2 (N=1,639)		대3 (N=1,347)		대4 (N=1,462)	
	M	SD	M	SD	M	SD	M	SD
진로결정	1.46	.51	1.49	.53	1.56	.53	1.53	.53
학교								
생활								
및								
지원								
체계								
지도교수와의 면담 횟수	1.54	2.16	2.23	3.72	2.14	3.32	1.85	3.80

진로결정은 대학 1년에서 대학 3년까지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치가 증가하였으나 대학 4년에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그림 1]과 같이 대학을 진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2 학년의 과반수 이상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생이 지각하는 학교자부심은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3학년 때까지는 높아졌으나 4학년 때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이 지각하는 교우관계,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학사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는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약간씩 감소하였다. 지난 1년 동안의 지도교수와의 면담 횟수는 대학 4년을 제외하고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과반수 이상의(53.5~68%) 학생들이 1~5회 정도 지도교수와 면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생들의 25~40%는 전혀 면담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대학생의 학년별 진로결정여부의 변화

## 2.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1~4학년 학생들이 지각하는 학교생활 및 지원체제 요인(교우관계, 학교자부심,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학사제도 운영)과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독립변수하여 이들이 진로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 가. 대학 1학년의 진로결정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대학 1학년의 진로결정 영향요인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모형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유의수준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hi^2 = 36.81/df=5, p=.000$ , Nagelkerke  $R^2=.023$ ), 각각의 개별변인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대학 1학년의 진로결정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인	B	S.E	Wald	Exp(B)	sig
교우관계	.12	.06	3.54	1.12	.060
<b>학교자부심</b>	.12	.03	14.01	1.13	<b>.000</b>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01	.03	.04	1.00	.849
학사제도 운영	-.02	.04	.41	.98	.521
<b>면담 횟수</b>	.05	.02	5.04	1.05	<b>.025</b>

학교생활 및 지원체계 변인 중 학교자부심, 지도교수와의 면담이 대학 1년생의 진로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승산비에 비추어 볼 때 학교자부심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다른 변인을 통제했을 때, 학교자부심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진로를 결정할 승산은 약 1.1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와 학과에 대한 자부심이 높을수록 진로를 결정할 승산이 높아진다. 이와 더불어 지도교수와의 면담횟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진로결정 확률이 1.0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1년생의 진로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만을 포함하여 최종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text{Log}\left(\frac{\text{진로결정확률}}{\text{진로미결정확률}}\right) = -1.14 + .13(\text{학교자부심}) + .05(\text{면담 횟수})$$

#### 나. 대학 2학년의 진로결정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대학 2학년의 진로결정 영향요인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모형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유의수준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hi^2 = 21.27/df=5, p=.001, Nagelkerke R^2=.017$ ), 각각의 개별변인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2학년의 경우 학교생활 및 지원체계 변인 중 학교자부심만 진로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승산비에 비추어 볼 때 학교자부심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진로결정 확률이 1.11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대학 2학년의 진로결정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인	B	S.E	Wald	Exp(B)	sig
교우관계	.08	.06	1.52	1.08	.218
<b>학교자부심</b>	.11	.04	9.581	<b>1.11</b>	<b>.002</b>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01	.03	.19	.99	.668
학사제도 운영	-.02	.04	.03	.99	.873
면담 횟수	.02	.02	1.48	1.02	.223



2학년의 진로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만을 포함하여 최종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text{Log}\left(\frac{\text{진로결정 확률}}{\text{진로미결정 확률}}\right) = -.86+.12(\text{학교자부심})$$

#### 다. 대학 3학년의 진로결정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대학 3학년의 진로결정 영향요인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모형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유의수준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hi^2 = 26.38/df=5$ ,  $p=.000$ , Nagelkerke  $R^2=.026$ ), 각각의 개별변인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대학 3학년의 진로결정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인	B	S.E	Wald	Exp(B)	sig
교우관계	.02	.07	.86	1.02	.770
<b>학교자부심</b>	.12	.04	9.00	1.13	<b>.003</b>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05	.03	3.13	.95	.077
학사제도 운영	.01	.04	.02	1.01	.877
<b>면담 횟수</b>	.07	.02	9.79	1.07	<b>.002</b>

3학년의 경우 학교생활 및 지원체계 변인 중 학교자부심과 면담횟수가 진로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승산비에 비추어 볼 때 학교자부심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진로결정 확률이 1.13배 증가, 면담횟수는 한 단위 증가할 때 1.0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3년생의 진로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만을 포함하여 최종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text{Log}\left(\frac{\text{진로결정 확률}}{\text{진로미결정 확률}}\right) = -.47+.09(\text{학교자부심})+.07(\text{면담횟수})$$

#### 라. 대학 4학년의 진로결정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대학 4학년의 진로결정 영향요인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모형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유의수준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hi^2 = 36.90/df=5$ ,  $p=.000$ , Nagelkerke  $R^2=.033$ ), 각각의 개별변인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대학 4학년의 진로결정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인	B	S.E	Wald	Exp(B)	sig
교우관계	.03	.07	.13	1.03	.721
<b>학교자부심</b>	.17	.04	19.21	1.18	<b>.000</b>
<b>비교과 프로그램 운영</b>	-.08	.03	8.05	.92	<b>.005</b>
학사제도 운영	.00	.04	.01	1.00	.938
면담 횟수	.03	.02	3.63	1.03	.057

학교생활 및 지원체계 변인 중 학교자부심과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만이 대학 4년생의 진로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승산비에 비추어 볼 때, 학교자부심은 진로 결정 확률의 증가에 기여하는 반면,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진로결정 확률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자부심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진로결정 확률이 1.18배 증가하는 반면, 학생고민 상담, 진로 정보 제공 및 상담, 기초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평가할수록 진로결정 확률이 약 .92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4년생의 진로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만을 포함하여 최종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text{Log}\left(\frac{\text{진로결정 확률}}{\text{진로미결정 확률}}\right) = -.47 + .17(\text{학교자부심}) - .08(\text{비교과 프로그램})$$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결정은 1, 2학년에는 진로 미결정율이 높았으나 대학 3, 4학년은 장래에 대한 진로 결정율이 높았다.

둘째, 학년별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생활 및 지원체계 요인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 결과 모든 학년에서 학교와 학과에 대한 자부심은 진로결정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에 1학년과 3학년은 지난 1년 동안의 지도교수와의 면담횟수가 진로결정 확률을 높였으나 4학년의 경우는 학교가 학생들의 진로결정을 위해 운영하는 학생고민 상담, 진로 정보 제공, 기초학력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V. 결론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중점 과제 중 하나는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날로 늘어가는 대학생들의 취업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학부선진화선도대학 지원사업, 교육역량강화사



업,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들은 이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 지원 정책 중 하나이다. 국가의 노력 뿐만 아니라 각 대학에서도 학교의 중,장기 발전 방안으로 학생들의 취업교육 및 지원을 내세우고 있다. 본 연구는 이같은 현 상황 속에서 과연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에 학교생활 및 지원체계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함에 있다.

본 연구에 대한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1, 2학년은 장래에 대한 진로 미결정율이, 대학 3, 4학년은 진로 결정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학년이 3학년에 비해 다소 약함을 나타냈다. 김봉환(1997)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수준을 종단적 연구분석이 아닌 학년간의 차이를 진로결정 수준의 발달로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약간 상이하게 나타났지만 대체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저학년에 비해 고학년일 때 진로결정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진로결정율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은 어느 시점에 이르러 갑자기 나타나는 1회적인 것이 아니라 발달적인 맥락에서 해석해야 함이 드러난 것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한 진로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생활 및 지원체계 요인으로 교우관계, 학교 자부심,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학사제도 운영, 만족, 지도교수와의 면담횟수를 설정하고, 이를 독립변수로 하는 인과모형에 대한 검증결과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든 학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특성이 대학생들의 진로의식 성숙도 및 진로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한 서민원(1996)의 연구와 Pascarella와 Terenzimi(1991)의 대학의 환경이 진로의식 발달 및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바이다. 결국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에는 개인의 특성도 중요하지만 대학에서의 생활 및 학교의 지원체계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대학의 외생적 효과를 잘 입증해주는 결과이다. 비록 대학생활 및 지원체계에 대해 객관적인 지표가 아닌 이에 대한 만족도로 평가했다는 한계가 있지만 이러한 결과는 대학이 적극적인 진로 및 취업지원 행정체계 마련 및 만족도 증가를 통해 학생들을 취업시장에 진입토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자임을 확인한 것이다. 대학 내에서의 생활 및 지원체계가 학생들의 미래를 구체화하는 현실적 가교가 된다면 학생들은 자신의 직업세계를 미리 알고 경험함으로써 사회에 보다 쉽고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해 학년별로 살펴본 결과 학교자부심은 모든 학년에서 진로결정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와 더불어 1, 3학년은 지도교수와의 면담횟수가 진로결정 증가에 영향을, 4학년은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이 진로결정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든 학년에서 학교자부심은 진로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변인으로 나타났다. 임은미(2011)는 대학생의 진로결정과정은 입학, 학과적응, 희망직업 구체화,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 공고화의 다섯 단계로 나타남을 제시하였고, 이 과정의 주요 개입요인 중 하나로 소속 전공과 학과에 대한 자부심을 언급하였다. 결국 대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학교 및 학과의 자부심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로교육

을 계획할 때 학과 및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동기 프로그램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4학년의 경우, 학교에서 제공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이 그들의 진로결정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앞에서도 제시하였지만 과연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로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방안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를 재검토 해볼 필요성이 요구된다.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산업체에서 원하는 인재상 및 역량을 진로관련 교과목 및 프로그램에서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요구분석과 성과분석을 통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1학년과 3학년의 경우 '지도교수와의 면담횟수'가 진로결정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은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 교수와의 상담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선행연구 중 이종구(2007)는 진로상담교수제가 학생들의 학업상담에는 효과가 있으나 취업상담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음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지도교수들이 학생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관련 요인은 매우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활용된 설명변인들은 사전에 계획되고 수집된 패널 자료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변인들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뒷받침 하지 못한 변인들을 포함하여 보다 폭넓은 연구결과 및 해석을 찾아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진로결정에 대한 요인을 탐색해 보았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인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포함하여 보다 생애 전반에 이루어지는 진로결정에 대한 발달 추이 및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 강원준, 김종인, 김종원(2008).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분석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15(1), 17~36.
- 김은주, 이기종(2011).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제 7회 한국고용패널 학술대회, 201~212
- 김봉환, 김계현(1995). 진로미결정에 관한 연구동향과 향후의 연구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7(1), 20~43.
-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미원(1996). 대학교육의 효과성 변인의 측정과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성태제(2011). 알기 쉬운 통계분석. 학지사.
- 이동혁(2010). 대학 진로관련 교과목의 효과성 검증 연구 분석, *상담학 연구*, 11(2), 657~683.
- 이민선, 이윤정, 문희강, 이해경(2010). 서울지역 의류학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4(11), 1870~1879.
- 이종구(2007). 진로상담교수제가 재학생들의 학습, 취업 역량과 경력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대학교 진로상담교수제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20(3). 1383~1411.
- 이지연(2001). 고등교육단계에서의 효율적인 진로지도 방안 연구: 4년제 일반대학을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은미(2011). 대학생의 진로결정과정과 개입요인 탐색, *상담학연구*, 12(2), 447~466.
- 전선영(2009). 대학환경과 개인특성이 사회복지학과 학생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1(2), 129~159.
- 최영미(2009). 부모애착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매개로.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윤미, 길혜지(2012).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경력전환 결정요인 탐색 연구. *직업교육연구*, 31(2), 1~21.
- 양명희(2005). 기초학력 도달 관련 심리특성 분석을 위한 로지스틱 모형 적용 연구. *교육평가연구*, 18(3), 97~116.
- 황매향, 손만익, 강혜영(2007). 대학생 대상 진로탐색 교과목 운영의 효과. *아시아교육연구*, 8(1), 71~91.
- Alwin, D(1974). College effects on educational and occupational attainme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9. 210~223.
- Brown, D.(2007). *Career Information, Career Cuonseling and Carrer Development*. New Jersey: Person Education, Inc.
- Crites, J. O.(1981). *Career Counseling: Models, Methods and materials*. NY: McGraw-Hill.
- Gati, I., Osipow, S. H., Krausz, M., & Saka, N.(1996) Validity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questionnaire : Counselee versus career counselor perception. *Journal of Vocation Behavior*, 56, 99~113.

- Nile, S. G., & Harris-Bowlsbey, J.(2008). *Career Development Intervention in the 21st Century*. New Jersey: Person Education, Inc.
- Pascarella, E. T, & Terenzimi, P.(1991). *How College Affects Students: Finding and Insight from 20 Years of research*. San Fransisco: Jossey-Bass.
- Smart, J.(1986). College effects on occupational status attainment.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24, 73~95.
- Smart, J.(1988). College influences on graduates' income levels,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29, 41~59.
- Tak, J, K(2006). Construct and concurrent validity of the 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Psychological Report*, 98. 511~516.
- Tinsley, H. E. A(2000). Technological Magic, Social Change and Counseling Rituals: The Future of Career Assesmen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8(4), 339~350.
- Walsh, D. J.(1987). Individual variation within the vocational decision making process: A review and integratio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14(1), 52~65.
- Zunker, V. G.(2006). *Career counseling: A holistic approach*. Thomson Brooks. Cole.

## ❖ Abstract ❖

### The Relationship Analysis of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School Life, Application System and Career Decision

Kim Noo-Ree(University of Seoul)  
Kim Hyo-Won(Sahmyook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d the factors that affect career decision of graduates from grade 1 students and grade 4 students using the 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KEEP).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case of grade 1 students and grade 2 students were compared to career determine the rate of 3,4 students. Second, The effect of factors were that peer relationships, school pride, extracurricular programs, school system, adviser counselling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all grade. Third, the school pride was the factors of influence career decision in all grades. 1, 3 grade were the factor of influence the number of advisor's counselling. But, 4 grade was that the factor of school system was negative influence of career decision. Based on the findings practic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for career education plan and career guidance were suggested.

**Keywords:** Career decision, school life and application system, Logistic regression analysis